

## 노베이스 전직 공무원 가정주부의 법무사 도전기

### 1. 수험 배경

저는 아들 둘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16년간 지방행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서 면직하고나니 삶이 무료하고 일을 통해 만나는 관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보고 정년이 없는 일을 알아봤는데, 다른 가족들이 법무사를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말해줘서 이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이 아이들 교육에도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올해 고3, 고1이 되는데 엄마가 공부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무뚝뚝했던 아이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쯤에는 집안일도 해주고 많이 배려하더라구요. 온 가족이 같이 공부하는 면학분위기 조성이 자동으로 되고, 전에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꾸준히 공부를 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어서 그런지 잔소리도 덜 하게 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 2. 1차(2022.11~2024.8)

#### 1) 2022년 11월~2023년 8월

2022년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완전한 노베이스였습니다. 민법과 민사집행법은 개념부터 낱설어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아도 일단 강의는 계속 들었지만, 하루 2~3시간 정도를 취미처럼 공부하던 시기였기에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사집행법 강의도 끝까지 수강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을 치렀고, 예상대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2023년 9월~2024년 8월 : 64점 합격(총 1400시간)

2023년도 시험을 치른 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 5시간 이상은 반드시 공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매일 공부 시간을 다이어리에 기록하며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안이하게 생활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5시간은 강의 수강 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자습 시간이었습니다.

#### ○ 헌법 - 이재영교수님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이 잘 맞아 즐겁게 수강했던 과목입니다. 어려운 내용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고, 특히 제공해주신 최신 판례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 ○ 상법 - 하영태교수님

수험생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은 부담을 내려놓게 해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험 직전에 진행해주신 최신 판례 특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 민법 - 이혁준교수님

기초가 전혀 없던 저도 민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끌어주신 교수님이셨습니다.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느끼던 과목이 점차 정리되었고, 문제를 풀 때도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민법에서 70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 김지후교수님

민사집행법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막막한 순간도 많았지만, 모든 수험생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시험 점수 확인 기간이 지나 정확한 점수를 인증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 상업등기법 - 김경중교수님

주주나 회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거의 없던 저에게 교수님의 강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상법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합격 후에야 상업등기를 주력으로 활동하시는 법무사님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더 열심히 들어둘 걸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 유석주교수님

강의가 무엇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톤의 목소리여서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들려주신 경험담도 인상 깊었고,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강의였습니다.

○ 공탁법 - 김경태교수님

강의 곳곳에서 교수님의 깊은 경험과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공탁법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전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생동차(2024.9~2024.11) : 43점

첫 2차 시험은 사실 충분한 준비 없이, 경험을 쌓아보자는 마음으로 응시했습니다.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니 90일 남짓한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민사소송법과 서류 과목은 과락(39점)이었고, 민법은 50점, 형사소송법은 15점, 형법은 25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과는 부족했지만, 2차 시험장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본 것은 이후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기득권(2024.11~2025.10/ 총 1500시간)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50.5	25	31.5	40.25	19.5	40.25	25.75

평균	58.1875
합격선	50
합격여부	합격

### 1) 요약서로 단권화

저는 시험장에 가져갈 교재를 각 과목별 요약서(암기장)로 정했습니다. 기본서는 강의를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용도로만 활용했습니다.

2순환·3순환 모의고사와 최신 판례는 답안지에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욕심을 내기보다는 실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압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시험 직전 2~3시간 안에 요약서를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끝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 2) 신청서류 매일 연습

하루는 민사서류, 하루는 등기신청서류로 나누어 선생님 교재를 보며 매일 20분씩 작성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40분을 배정했지만, 연습 단계에서는 형식을 익히고 손에 익숙해지도록 따라 써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반복 연습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특히 어렵게 출제되었던 민사서류, 등기서류 과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3) 과목별 공부방법

#### ○ 민법, 민사소송법 - 이혁준교수님

교수님의 수업은 민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 해주셔서 복잡하게 느껴지던 내용이 정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문자를 익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책 여백에 직접 메모해가며 반복해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수님 말씀대로 당사자가 2인 이상 등장하는 경우에는 관계도를 그려보며 구조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실제로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형법 - 이재영교수님

교수님께서 형법이라는 과목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주셔서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형법 총론 부분도 수업해주시는 것도 재밌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전해주시는 수험생활에 대한 조언들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 방법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들이어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 ○ 형사소송법 - 김영환교수님

수업은 무엇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적중률에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놀랐고, 그 덕분

에 형사소송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답안에 적어주신 격려의 한마디는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응원 문구를 보고 하루 종일 기뻐했던 날도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그런 작은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민사서류 작성 - 이천교교수님

서류작성은 제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험시간 안에 누구도 완벽하게 작성할 수는 없다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완벽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하자는 생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부동산등기법, 등기서류 작성 - 김기찬교수님

쉽게 잡히지 않아 늘 부담이었던 부동산등기법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체계를 잡아주셔서, 어느 순간 등기법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모의고사 채점은 놀랄 만큼 꼼꼼했습니다. 세심한 피드백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핵심만 짚어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해주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5. 시험당일의 마음가짐

2차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실력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합격 여부는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부담감 때문에 시험 전 이틀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긴장감 때문인지 졸리다는 느낌을 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편의점에서 양반죽을 사서 먹으며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매 시간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과락만은 면하자'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이재영 선생님께서 각 과목을 과락만 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면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과목도 생기고, 결국 합격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6. 마치며

수험생활은 참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이라는 신분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아,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선생님들과 마음속으로 가까워졌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스승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길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